

---

碩士學位請求論文

어머니의 養育行動이  
兒童의 情緒知能에 미치는 影響

指導教授 許 鐵 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吳 英 美

1997年 8月

어머니의 養育行動이  
兒童의 情緒知能에 미치는 影響

指導教授 許 鐵 洙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提出者 吳 英 美



吳英美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7年 7月 日

審査委員長 許 鐵 洙  
審査委員 許 鐵 洙  
審査委員 朴 泰 秀

<國文抄錄>

어머니의 養育行動이  
兒童의 情緒知能에 미치는 影響\*

吳 英 美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指導教授 許 鐵 洙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성, 지역,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정서지능은 성, 지역,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이 있다면 아동의 정서지능을 설명하는데 어떤 양육행동이 더 중요한가?

위의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도에 있는 2개의 시, 2개의 군에 있는 초등학생 4,5,6학년 학생들 중 약 600명을 선정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처음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검사지와 정

\* 본 논문은 199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서지능 검사지를 한 묶음으로 하여 600부 배부했으나 편부아동, 부실 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한 582부가 회수되어 연구대상이 되었다.

검사의 종류는 먼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검사도구는 정현희(1990)의 검사지를 사용하고, 아동의 정서지능은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의 검사지를 사용했다.

자료처리는 SPSS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 F검증, 상관분석을 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대·간섭적 행동, 불안·복종적 행동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지각한다. 지역별에서는 서귀포시 지역의 아동이 다른 지역 아동보다 어머니를 더 기대·간섭적, 온정적으로 지각한다.

둘째, 아동의 정서지능에서는 정서표현 능력과 정서활용 능력이 여아가 남아보다 매우 또는 다소 높다. 정서조절 능력은 서귀포시가 가장 높고 다음이 제주시가 높다. 정서인식 능력과 감정이입 능력, 그리고 정서조절 능력은 학년이 높을수록 매우 높다.

셋째,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민주·자율적, 온정적, 기대·간섭적으로 지각하고, 덜 불안·복종적으로 지각할 때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감정이입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정서조절 능력은 높다.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민주·자율적, 기대·간섭적, 온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는 자기의 정서인식 능력,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서활용 능력이 높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지능을 높여 행복한 삶, 성숙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민주·자율적 양육행동이여야 할 것이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와 가설 .....	3
3. 연구의 제한점 .....	3
II. 이론적 배경 .....	5
1. 어머니의 양육행동 .....	5
2. 정서지능의 개념과 하위요소 .....	10
1) 정서지능의 개념 .....	12
2) 정서지능의 하위요소 .....	15
3) 정서지능의 신경학적 근거 .....	21
3. 양육행동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	23
III. 연구방법 .....	26
1. 대상 .....	26
2. 도구 .....	26
3. 자료처리 .....	29
IV. 결과 및 해석 .....	31
1. 어머니의 양육행동 .....	31

2.아동의 정서지능 .....	33
3.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 .....	37
V. 요약, 결론 및 제언 .....	42
1.요약 .....	42
2.결론 .....	44
3.제언 .....	45
참고문헌 .....	46
영문초록 .....	50
부 록 .....	52
<부록 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검사지 .....	53
<부록 2> 초등학교 고학년용 정서지능 검사지 .....	56



## 표 및 그림 목 차

<표Ⅱ- 1> 학자에 따른 양육행동 분류 .....	9
<표Ⅱ- 2> 정서지능의 영역별 하위요소별 내용 .....	14
<표Ⅲ- 1> 대상자별 구분 .....	26
<표Ⅲ- 2> 양육행동 요인에 대한 하위요소와 문항번호 .....	27
<표Ⅲ- 3> 정서지능 검사의 신뢰도 .....	28
<표Ⅲ- 4> 정서지능 요인에 대한 문항 분석 .....	29
<표Ⅳ- 1> 남녀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차이 .....	31
<표Ⅳ- 2> 지역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차이 .....	32
<표Ⅳ- 3> 학년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차이 .....	33
<표Ⅳ- 4> 남녀별 정서지능 차이 .....	34
<표Ⅳ- 5> 지역별 정서지능 차이 .....	35
<표Ⅳ- 6> 학년별 정서지능 차이 .....	36
<표Ⅳ- 7> 정서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상관도 .....	38
<표Ⅳ- 8> 정서표현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상관도 .....	39
<표Ⅳ- 9> 감정이입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상관도 .....	39
<표Ⅳ- 10> 정서조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상관도 .....	40
<표Ⅳ- 11> 정서활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상관도 .....	41
<그림Ⅱ- 1> Schaefer의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가설적 모형 .....	7
<그림Ⅱ- 2> 정서지능의 하위요소 .....	1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아동과 청소년들은 그 어느 시대의 젊은이들보다 많은 과학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똑똑하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 그 어느 시대의 아동들보다 고독하고 우울하며, 화를 잘 내고, 반항적이며, 신경질적이고, 불안하며,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교육이나 학교 교육은 여전히 학문적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후자의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차적 관심정도이거나, 심하게 보면 문제만 하소연할 뿐이다.

학문위주의 교육은 인간성을 상실케 하고 인간의 도덕적 가치 생활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문제 행동들을 유발시켜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더구나 가정에 있어서 핵가족의 보편화 경향과 이로 인한 자녀 수의 격감으로 아동들이 점점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고 있고, 한편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성공, 건강, 행복 등에 정서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Golman, 1995).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를 극복하는데는 가정과 학교에서 정서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조절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정서적 특성은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며, 그들의 정서적 특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체는 부모(Kernberg, 1976)로서 자녀가 정서를 식별하고, 명명하며, 존중하고, 그 정서를 사회적 상황에 연결시키는 것을 부모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서 기술들의 학습은 훌륭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의 발달과 인간관계의 형성 등을 주요 하위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정서지능의 개발은 성인기보다는 인간의 발달단계 중에서 정서적 특성이 형성되기 전, 아직 변화 가능성이 많은 단계인 초기 아동기에 속하는 아동, 늦어도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김창대, 1997).

인간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가장 기초적 단위의 사회 경험이며 가족 구성원과의 생활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배우며 가치관, 습관 등이 형성되는 곳으로 개인이 일생동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환경이다. 또한 가정은 인간의 발달과 사회성 및 정서성을 포함한 성격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심리적 과정을 포함한 인적 환경이며 이러한 인적 환경은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때 갖게 되는 양육행동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하여 각각 알아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함으로써 아동기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서지능 형성에 알맞은 양육행동을 파악 제시하여 원만한 어머니-자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2. 연구 문제와 가설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성, 지역,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정서지능은 성, 지역,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이 있다면 아동의 정서지능을 설명하는데 어떤 양육행동이 더 중요한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성, 지역, 학년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 아동의 정서지능은 성, 지역, 학년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줄 것이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대상이 연구자가 살고있는 제주지역 10개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자연스러운 실제 상황에서가 아니라 질문지법만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면접법이나 관찰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포괄적으로 보지 못했다.

셋째, 어머니-자녀간의 관계가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으나 조사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극한시켜 조사분석하였다.

넷째,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변인은 여러 가지 변인이 있겠으나 본 연구는 성별, 학년별, 지역별,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나누어서 알아보았다.



## Ⅱ. 이론적 배경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지능에 대해 각각 제시한 후 양육행동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인간의 형성과정은 유전적 요소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환경은 가정, 학교, 사회·문화가 있다. 이 중에서 가정은 가장 기본적이며 결합능력이 강한 공동체의 하나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가정환경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의 초기환경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발달에 있어서 가장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그 대행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이다. 이것은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정서, 인지적 발달에도 영향(Becker, 1965)을 미친다는 보고에 따라 많은 학자, 교육자, 일반 부모의 관심이 오랫동안 이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최근에는 아동이 주변의 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보고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어서,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논의되고 있다(이숙,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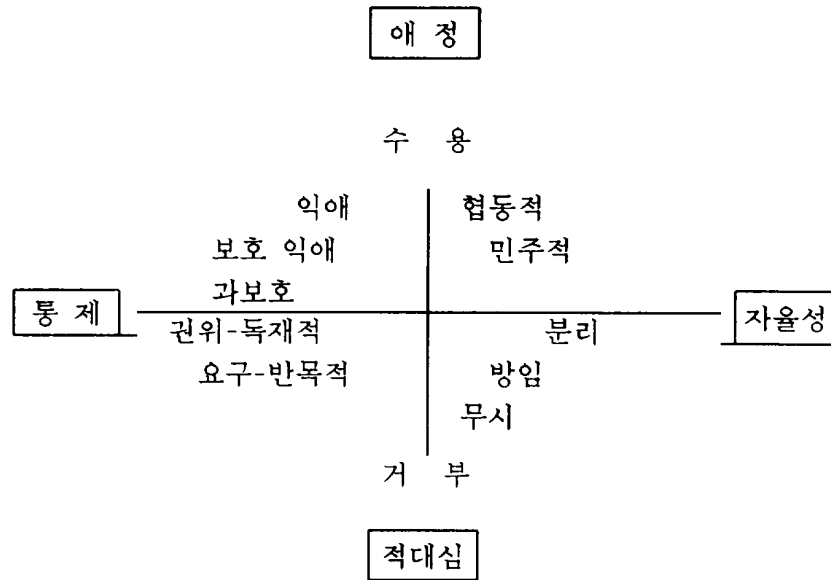
인간의 초기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Freud 이후 Erikson(1956)은 정서발달의 첫 단계인 아동의 신뢰감은 어머니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자신감과 자아감을 갖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또한 Sears는 아동 개개인의 인성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며 아동기의 모든 행동은 그가 어떻게 키웠느냐 하는 부모의 양육방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윤정애, 1995. 재인용).

부모의 양육행동을 처음으로 이론화한 사람은 Symonds(1945)로서 부모 자녀의 관계를 거부-보호(Rejection-Acceptance), 지배-복종(Dominance-Submission)을 양극으로 하는 두 요인 축에 의해 2개 차원으로 구분했다. 이런 두 개 차원을 다시 지배에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보호에는 간소형과 불안형, 복종에는 복종형과 익애형, 거부에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의 형태로 분류하였다(정현희, 1990. 재인용).

Baldwin(1955)은 부모행동의 평정척도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로 가정의 분위기를 민주적, 전체적, 익애적, 거부적 가정으로 유형화하였다(윤정애, 1995. 재인용).

Schaefer(1959)는 양육태도를 <그림 II-1>과 같이 적대-애정(Hostility-Love) 통제-자율(Control-Autonomy)을 양극으로 하는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하였다(윤정애, 1995. 재인용).

적대-애정 차원에서 부모의 거부는 적대심과 공격성, 무관심과 무시라는 두 개의 중요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거부적 부모는 자녀를 싫어하고 비난하거나 적개심을 품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고, 이때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귀찮게 여기며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지각하게 된다. 애정적인 태도는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고 아동중심적이며, 자



<그림 II-1> Schaefer의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가설적 모형(Schaefer, 1959)

주 설명을 해주고, 훈육법으로는 체벌 대신 상을 사용하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통제-자율 차원은 엄격함과 허용성이라는 양극적인 차원을 형성하는데, 엄격한 태도는 매우 많은 규정과 금지를 제기하고 강요하는 태도이다. 허용적인 태도는 거의 규칙을 제시하지 않으며, 자녀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끔 허락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녀는 거의 부모가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고 지각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통제-자율 차원은 적대-애정 차원보다 구체적인 부모 행동에 더 많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문제가 적다고 할 수 있다.

Glen Elder(1960)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기 의사 표시, 주도성 등을 전혀 못하도록 자녀를 억압하는 전제형,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언제나 부모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위주의형, 자기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참여할 수 있으나 여전히 마지막 결정은 부모와 협의하여 내리는 민주형, 자녀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하여 부모-자녀가 비슷한 정도로 관여하고 서로의 역할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평등형, 자녀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모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허용형, 자녀의 행동과 문제에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권한을 자녀쪽이 가지는 방임형,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부모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무시형이 있다(이춘재 외, 1992. 재인용).

Becker(1964)는 부모가 보여주는 사랑의 양육태도는 그 자녀로 하여금 높은 자존감, 원만한 대인관계, 확고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도록 도와주며 반대로 부모의 양육방법이 거부적이고 적대적이면 자녀는 학업 성적 부진, 대인관계의 부적응, 신경증적 행동, 기타 사회 비행과 같은 부적응을 일으킨다. 거부적이고 증오적인 경우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 폭력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사회 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는 자녀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는 커 가면서 부모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에 불타게 되고 가출이나 비행 집단에 소속되어 공포성과 폭력 욕구를 표출하게 된다고 한다(이춘재외, 1992. 재인용).

Baumrind(1973)는 통제, 성숙에의 요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명확성 및 부모의 양육성(nurturance)의 4차원에 기초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적(authoritarian) 통제, 엄격한(authritative) 태도, 허용적(permissive) 태도의 3유형으로 분류하였다(이숙, 1988).

국내에서는 오기선(1965)이 “아버지와 자녀 진단 검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 태도, 지배적 태도, 보호적 태도, 복종적 태도, 모순 불일치적 태도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정원식(1975)은 가정을 심리적 환경으로 개념화하면서 수용-거부,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의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또, 정현희(1990)는 민주·자율적 행동, 기대·간섭적 행동, 온정적 행동, 불안·복종적 행동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누었다.

이 외에도 양육행동을 분류하는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학자에 따른 양육행동의 분류는 <표Ⅱ-1>과 같다.

<표Ⅱ-1> 학자에 따른 양육행동 분류

학 자	양육행동 분류
Symonds(1949)	거부적, 과보호적, 지배적, 복종적
Baldwin(1955)	민주적, 전제적, 익애적, 거부적
Schaefer(1959)	애정-거부, 자율-통제
Glen Elder(1960)	전제형, 권위주의형, 민주형, 평등형, 허용형, 방임형, 무시형
Baumrind(1973)	권위적 통제, 엄격한 태도, 허용적 태도
오기선(1965)	거부적 태도, 지배적 태도, 보호적 태도, 복종적 태도, 모순 불일치적 태도
김재은(1974)	화목-불화, 허용-엄격, 친애-소원
정원식(1975)	수용-거부,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
이 숙(1988)	온정적 태도, 거부·권위적 태도
정현희(1990)	민주·자율적 행동, 기대·간섭적 행동, 온정적 행동, 불안·복종적 행동

선행연구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행동 요인은 애정(수용, 온정), 거부(적대), 자율, 지배, 성취지향, 불일치(모순)였다. <표Ⅱ-1>에 의하면 양육행동 유형들은 용어가 달리 표현되어 있으나 몇 가지 공통점을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즉 부모의 애정의 정도와 통제의 정도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



를 통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든 정현희의 양육행동분류를 선정하여 사용했다.

## 2. 정서지능의 개념과 하위요소

전통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이성적인 것(지성)과 감정적인 것(정서)으로 나누었다. 인간의 마음은 주로 이성적인 것에 의해 대표되어 왔고 이성적인 능력, 즉 지적인 능력(IQ)의 의해 평가되고 측정되어 왔다. 하지만 감정적 반응이나 행동은 동물정신이나 통제 불가능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20C에 들어와 인간의 능력을 이해할 때 지적인 것과 더불어 정서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견해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와 인간의 성공, 건강, 행복 등에 정서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정서심리학에서는 정서(emotion), 감정(feeling), 기분(mood)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학자들 간에는 emotion과 mood는 비교적 일관성있게 구분되고 있다. Emotion은 mood에 비해서 지속시간이 짧고, 선행 사건이 분명히 지각되며, 대상이 뚜렷하고, 독특한 얼굴 표정과 생물학적 과정을 수반하며, 행동(준비성)에 변화를 가져온다. 반면에 mood가 동시에 경험될 수 있다고 제안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emotion을 '정서'로, mood를 '기분'으로, feeling은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하여 '느낌'으로 번역하고 있다. 반면에 Mayer와 Salovey(1990, 1997)는 이러한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문자 그대로 광의의 정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정서

처리 과정에 초점을 둔 정서지능에서 과연 정서에 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먼저 살펴보고, Mayer와 Salovey의 개념을 중심으로 정서지능의 개념과 하위요소, 정서지능의 신경학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IQ 개념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E.L.Thorndike는 사회적 지능을 타인에 대한 민감성과 인간관계에서 현명하게 행위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적 능력이 필수적인 인간의 능력이라 주장하였다(하대현, 1997. 재인용).

Wechsler(1958)는 지능을 합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집합적 혹은 총체적 능력이라고 하였다(전경구, 1997. 재인용).

Zigler(1986)는 지능의 현실적 유용성을 강조하며, 현재 지능검사를 측정하는 내용을 형식적인 인지능력(예, 기존의 표준적인 IQ검사), 성취도, 동기적 및 정서적 요인, 사회적 능력과 같은 4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중에서 동기적 및 정서적 측정 문제는 어렵지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하였다(하대연, 1997. 재인용).

Sternberg(1992)는 지금까지 종래 지능검사의 대안으로 제안되었던 검사방법들의 여러 가지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새로운 검사방법들은 종래 지능검사를 대신하기보다는 보완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그 방법들을 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미래의 검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지능의 요소분석적인(과정적인) 면, 지능의 창의적인 면, 지능의 실제적인 면, 학생의 사고 양식과 학습 양식에 대한 査定이라고 제안하였다(하대연, 1997. 재인용).

Gardner(1984)는 지능이 IQ처럼 한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가지의 지능 즉,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 논리수학지능(Logical Mathematical Intelligence),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 신체운동지능(Bodily Kinesthetic Intelligence), 대인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대내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이 있다고 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일곱 가지 지능을 가질 수 있지만 일곱 가지 지능의 수준은 천차만별일 수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대인지능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희생,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의 소유자다. 대내지능은 감정, 정서, 예민성, 아량, 인내심 등 사람에 대한 관심의 정도도 지능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문용린, 1997.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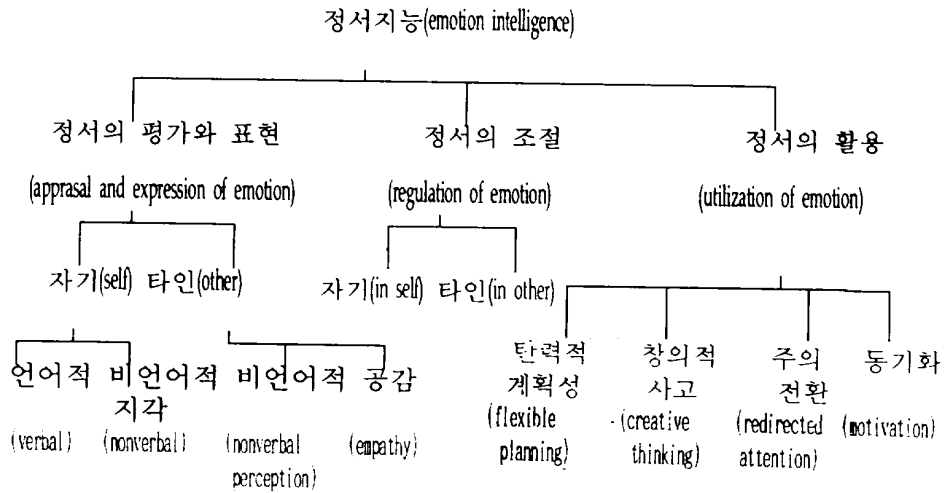
Epstein(1992) 역시 기존의 지능검사로 측정된 지능이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나 인생에서의 중요한 성공 지표들을 잘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후, 실용적인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대처하는 정서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점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보았다(전경구, 1997. 재인용)

지능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인지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일부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능'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 1) 정서지능의 개념

정서지능이란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90년 미국 뉴 햄프셔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John Mayer와 예일 대학의 교수인 Peter Salovey이다. 그들은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

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정서를 이용하여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그들은 정서지능의 하위요소를 <그림 II-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John Mayer & Peter Salovey, 1990).



<그림 II- 2> 정서지능의 하위요소(John Mayer & Peter Salovey, 1990)

<그림 II- 2>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문용린, 1996).

<표 II - 1> 정서지능의 영역별 하위요소별 내용

정서의 평가와 표현	언어적 측면(자아)	정서는 언어에 의해서 평가되고 표현된다. 이 영역에서는 자신의 정서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비언어적 측면(자아)	정서의 의사소통 중 많은 부분은 비언어적인 경로를 통해서 일어난다. 비언어적인 신호(표정, 몸짓)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으로써 개인차를 알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인식하는 사람이 타인의 감정도 잘 알아차린다.
정서의 조절	타인의 정서의 인식	타인의 불쾌한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의 모든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능력은 안면표정을 통해서 나타난 정서를 해석하는 것으로 개인차를 알 수 있다.
	감정이입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재경험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이 느낀 감정이나 기분을 마치 자신이 느낀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정서의 조절	자아속에서의 정서의 조절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 하면서 좋지 않은 기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타인의 정서의 조절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려는 능력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 타인이 가지게 되는 인상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동방식이다. 대인관계를 원활히 증진시키기 위해 타인과의 부정적인 대화를 억제하는 능력이다.
정서의 활용	융통성있는 계획 세우기	기분전환을 통해 좌절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며 가능한 다양한 결과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창조적인 사고	정서는 기억속에 있는 정보를 조직하고 활용하는데 영향을 줌으로써 문제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 정보를 유목화함으로써 창조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정서의 활용	주의집중의 전환	부정적인 강한 감정이 생겼을 때 새로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에 대해 주의를 두게될 때 현재 진행중인 문제로부터 벗어나 새롭고 더 중요한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동기화	정서는 도덕적인 과제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준다. 또한 사람들은 좋은 기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켜서 어려운 장애나 고통스런 경험을 극복하고 활동을 지속시키도록 한다.

Daniel Goleman(1995)은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EI)』이라는 책에서 정서지능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자기인식,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조절, 어려움을 참아내어 자신의 성취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기동기화,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감정이입, 인식한 감정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 등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Mayer와 Salovey가 주장하는 정서지능은 3영역 10개 하위요소로 개념화된다. 그러나 Goleman에게 있어서 정서지능은 5개의 하위구성요소로 직접 구분되는 개념이다. Goleman의 구성요소 구분은 다분히 Mayer와 Salovey의 3개 영역 10개 하위 구성요소를 대중적 기호에 맞게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갖게 만든다(문용린, 1996).

## 2)정서지능의 하위요소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하위요소는 정서인식 능력, 정서표현 능력, 정서조절 능력, 감정이입 능력, 정서활용 능력 등 모두 5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정서인식 능력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제대로 알아차리는 능력을 말한다(Mayer & Salovey, 1990). 즉, 자신의 현재 감정이 화가 난 것인지, 우울한 것인지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은 다른 정서지능 요인들, 즉, 정서표현 능력, 정서조절 능력 및 정서활용 능력에 기본이 되는 능력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알아차리는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려서 적절하게 조절하기 때문이다.

정서인식 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내부에서 느끼는 감정, 현재 가지고 있는 정서를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이 능력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분류할 줄 아는 능력도 포함된다.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 능력은 타인의 불쾌한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의 모든 감정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능력은 안면표정을 통해서 나타난 정서를 해석하는 것으로써 개인차를 알아볼 수 있다.

정서인식 능력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언어적인 단서와 비언어적인 단서로 구분할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릴 때에는 언어적인 단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비언어적인 측면, 예를 들어 목소리나 말투, 표정 등의 단서를 놓치지 않고 이 단서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도 포함된다.

정서인식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를 잘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정서인식 능력은 정서지능의 다른 하위요소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정서인식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다른 능력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정서인식 능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은 물론 타인이 느끼는 감정에 정서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기술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 (2) 정서표현 능력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할 줄 알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자신이 느끼는 좋거나 나쁜 감정을 억누르거나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말과 몸짓으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다(Mayer & Salovey, 1990).

정서표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리더로서 인정을 받는다.

자신에게 있어서 정서표현 능력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며, 이것은 다시 언어적인 측면과 비언어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적 측면에서의 정서표현 능력이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말로서 드러내 보이고,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비언어적 측면에서의 정서표현 능력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말로서 표현하기 곤란할 때 표정이나 행동 등으로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정서표현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기분을 정확한 말로 표현하되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 (3) 감정이입 능력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을 똑같이 자신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흔히 공감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특히 타인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하여 도울 수 있는 이타적인 행동의 근간이 되는 능력이다.

감정이입적 경험이나 그에 대한 개념은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감정이입이라고 처음 명명한 사람은 Rogers였다(1942). Rogers는 감정이입



을 긍정적인 성격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여섯 가지 필요충분조건 중의 하나로 소개하였다(허철수, 1997. 재인용).

Hoffman(1983)은 감정이입을 첫째, 타인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추론하는 것과, 둘째, 타인의 정서상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의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허철수, 1997. 재인용).

Eisenberg(1989)는 감정이입(empathy)을 동정(sympathy)과 비교하여 감정이입을 타인의 감정상태 또는 감정조건에서 기인하는 대리적인 정서상태로 정의내리고 상대의 상태나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동정은 슬픔이나 타인에 대한 관심 등의 감정상태 또는 감정조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서 친사회적 행동의 기초로 보았다. 또 감정이입은 감정적 반응이기는 하지만 타인의 감정상태 또는 역할수용(role-taking)을 분류할 능력과 같은 인지적 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허철수, 1997. 재인용).

Innotti(1978)에 의하면, 감정이입은 역할수용의 효과를 가져오며 인지와 사회성간의 공유영역으로 작용하였다. 감정이입을 다른 사람의 조망에 대한 정의적 반응으로 정의할 때, 연구자들은 감정이입을 이타주의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과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이용해 왔다(허철수, 1997. 재인용).

감정이입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 처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또한 감정이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잘 위로해 주는 따뜻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 (4) 정서조절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며 개인을

사회적응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Dodge(1990)와 Thompson(1990)은 '정서적 자기조절'의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정서적 자기조절을 '정서상태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여 자신을 주변환경과 생산적으로 어울려질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소개하였다(허철수, 1997. 재인용).

그리고, Golman(1995)은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조절'이라고 했다. 이 때의 자기조절은 정서조절과 같은 의미로,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Mayer와 Salovey(1990)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정서조절 능력이라 정의하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능력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즉, 나쁜 기분을 억제하여 좋은 기분 상태로 전환하고 좋은 기분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기분을 향상시키고 정서를 조절하여 가치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능력이 그것이다. 전자의 능력을 '자신의 정서조절'이라고 하며, 후자의 능력을 '타인의 정서조절'이라고 한다.

정서조절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매우 잘 다스리고 타인의 정서도 능숙하게 조절할 수 있어 장차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조절력과 적응력이 뛰어나 성공적인 사회인이 될 가능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 (5)정서활용 능력

자신의 정서를 이용해서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Mayer & Salovey, 1990). 정서활용의 기본가정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정서상태에 있을 때 지적인 능력은 효율적으로 작용한다는 심

리적 사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자신의 정서상태를 긍정적이고 유쾌해지도록 의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분과 정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전략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 정서의 변화는 미래의 다양한 계획을 창출하는 일을 용이하게 해 준다. 둘째, 긍정적인 정서는 기억의 조직화를 도우며 인지적인 요소들을 잘 통합하고 다양한 생각을 유도한다. 셋째, 정서는 복잡한 요소들을 잘 통합하고 창의적이고 융통적인 생각을 촉진한다. 넷째, 정서는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새로운 처리과정으로 유도하고 새로운 문제에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일시적인 주의를 집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정서와 기분은 복잡한 지적과제의 수행을 동기화시키고 촉진한다.

정서활용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상태를 적절하게 잘 조절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또한 정서활용 능력이 높다는 것은 마치 인생을 관조적으로 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유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은 삶이나 자신의 세계에서 성공에 초석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정서지능 하위요소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정서인식 능력이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다른 정서지능 요인들 즉, 정서표현 능력, 정서조절 능력, 정서활용 능력에 기본이 되는 능력이다.

정서표현 능력이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할 줄 알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리더로서

인정을 받는다.

감정이입 능력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을 자신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특히 타인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하여 도울 줄 아는 이타적인 행동의 근간이 되는 능력이다.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며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요인들 중 특히 개인을 사회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서활용 능력은 자신의 정서를 이용해서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자신의 정서상태를 긍정적이고 유쾌해지도록 의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3) 정서지능의 신경학적 근거

오랫동안 중요시 여겨왔던 이성은 정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뇌의 구조와 정서반응을 일으키는 신경회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MacLean(1970)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진화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3층의 뇌구조 발달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다. 가장 먼저 생겼으며 생명 유지가 주기능인 뇌간, 정서와 동기를 매개하는 변연계, 진화가 계속 진행되어 가면서 추리, 판단, 상상, 언어와 같은 고등정신 기능을 담당하는 신피질층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이 세 가지 뇌 부위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최근에 들어 신경과학적 발전이 두드러지면서 변연계 가운데 특히 정서기능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도체와 사고 기능의 중추인 대뇌피질(특히 전두엽) 사이 그리고 정서자극

을 중계하는 하위 뇌인 시상 사이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신경회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나아가 편도체 가운데에서도 특히 편도체핵이 다양한 정서 통제 의 핵심기구가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장현갑, 1997. 재인용).

LeDoux(1993)에 의하면 정서자극이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데는 두 가지 신경회로가 있다고 하였다. 즉, 정서자극이 시상에 이르면 단 한 번의 시냅스가 이루어진 후 두 종류의 길을 거쳐 정서 뇌인 편도체에 전달된다. 대부분의 정서와 관련된 정보과정은 시상하부에서 전두엽을 경유해서 편도체에 이르지만, 일부는 시상하부에서 직접적으로 편도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서경험은 인지에 영향을 받지만, 때로는 인지와 독립적으로 정서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일단 편도체가 흥분하면 정보가 도리어 전두엽으로 경유됨으로써 인지에 미치는 정서가 매우 중요함을 아울러 보여 주고 있다(Goleman, 1995).

정서의 뇌는 일상생활의 여러 정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은 기꺼이 선택하여 집중하고 어떤 일은 기피하여 배제하는 따위의 의사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이성의 뇌만큼이나 지적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성의 뇌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양된 정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서 상태를 인지하여 통제한다. 따라서 정서 뇌와 이성 뇌의 조화로운 관계는 가장 이상적인 지적 기능을 보일 수 있는 상태라 할 것이며 이런 두 뇌 부위의 조화로운 관계가 바로 정서지능의 대뇌 생리학적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장현갑, 1997. 재인용).

그런데 대뇌피질은 태어나서 커가는 동안 조금씩 발달해 가지만 편도복합체는 출생할 때 그 구조가 이미 상당부분 성숙돼 있어 아기 때 부터 정서적 경험이 각인되며 쌓인다. 따라서 부모들은 유아기 때 정서적 경험을 바르게 시켜야 한다(이원영, 1996).

### 3. 양육행동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자녀들의 정서적 경험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떠한가에 따라 차이를 갖는다. 양육행동과 정서와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관계 이론이나 애착이론에 의하면, 아이는 낳 때부터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본능적인 욕구와 힘이 있으며, 초기 대상과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만족과 좌절의 경험, 적절한 애착과 개별화 대상에 대한 통합적 개념형성과 분리된 개념 형성 등은 차후의 정서적 발달과 성격구조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Winnicott는 환경과 어머니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성장촉진적 환경, 어머니의 염려, 어머니와 신생아간의 일체성, 충분히 좋은 어머니 등의 개념은 한 인간의 정서 및 성격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부모의 역할,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김창대, 1997).

이밖에도 인간의 정서적인 특성은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며, 그들의 정서적 특성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주체는 부모라는 것은 수많은 발달심리학자들에 의해 거의 정설화되어 있다. Erikson(1963)에 의하면, 인간이 태어나 이 세상에 대해 신뢰감을 형성하고 죄의식이나 수치심과 같은 정서의 기반은 학령기 이전에 형성된다. Bowlby나 Kernberg(1976)등에 의하면 초기 아동기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경험, 특히 애착관계의 형성과 독립적인 정체성의 확립과 관련된 경험, 주요 대상으로서의 부모의 반응은 초기 아동기 이전에 속한 자녀의 정서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쳐, 그때 형성된 정서적 패턴과 틀은 그의 일생을 좌우할 정도다(김창대, 1997. 재인용).

가정은 정서지능에 관한 최초이자 최고로 중요한 학습의 장이다. 이 친밀한 배움터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을 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희망과 공포심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등을 배우게 된다. 이런 정서지능의 학습은 부모들이 직접 자녀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을 통해서 뿐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감정과 부부간에 교환되는 감정들을 다룰 때 사용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뛰어난 정서지능 교사가 되는가 하면, 어떤 부모들은 잔혹한 교사가 되기도 한다(문용린, 1997).

가족 구성원이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며,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감정을 조절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놀이문화와 가족 행사를 통해 다양한 정서체험을 하게 될 때 아이는 두뇌의 정서회로가 안정되고 발달된다(문용린, 1997).

Mayer와 Salovey(1997)는 정서지능과 관련된 기술 중 최소한 몇 가지는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들은 자녀가 정서를 식별하고, 명명하며, 존중하고, 그 정서를 사회적 상황에 연결시키는 것을 부모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서기술들의 학습은 훌륭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출발한다(하대현, 1997. 재인용).

그러므로 어머니가 전인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을 가지고 자녀를 지도하고 바람직한 가정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경우 아동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발달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정서지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양육행동과 정서지능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더욱이 가정의 심리적 환경, 즉 가정에서의 양육방법,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애정과 자율성의 허용정도는 한 개인의 성장 발달과정과 정서지능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고려할 때 가정의 심리

---

적 환경(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정서지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 중 약 600명을 선정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처음 600부를 배부하였으나 편부아동, 부실 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한 582부가 회수되어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은 <표Ⅲ-1>과 같다.

<표Ⅲ-1> 대상자별 구분

구분	성별		지역별				학년별			계
	남	여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4학년	5학년	6학년	
응답 자수	302	280	121	99	180	182	190	201	191	582

대상자 선정은 연구자가 성별, 지역별, 학교급별로 임의 표집하였다. 검사실시는 학급담임 선생님에 의해 실시요령을 주의깊게 전달한 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검사지와 정서지능 검사지를 동일 대상에게 실시되었다.

#### 2.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검사지와 정서지능 검사지를 사용했다.

## 1) 어머니의 양육행동검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검사도구로 먼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검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만든 정현희(1990)의 검사지를 사용했다. 이 검사지는 Cronbach  $\alpha$ 가 .79이고 한달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이다.

<표Ⅲ-2> 양육행동 요인에 대한 하위요소와 문항번호

요인	하 위 요 소	문 항 번 호
요인 1 (민주·자율적 행동)	아동중심, 자립적 사고의 고무, 격려, 성장의 촉구, 훈육의 정당성, 합리적 해결과정 조성, 거부적 태도	5, 6,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요인 2 (기대·간섭적 행동)	부모의 우세, 부모의 간섭	35, 36, 37, 38, 39, 40
요인 3 (온정적 행동)	시간, 활동의 공유, 애정의 표현, 아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1, 2, 3, 4, 7, 8
요인 4 (불안·복종적 행동)	부모의 불안, 부모의 맹종	41, 42, 43, 44

<표Ⅲ-2>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검사는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인 1은 민주·자율적 행동, 요인 2는 기대·간섭적 행동, 요인 3은 온정적 행동, 요인 4는 불안·복종적 행동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총 44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 되어 있으며, 문항 1번부터 28번까지는 5

점(아주 그렇다)부터 1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29번부터 44번까지는 1점(아주 그렇다)부터 5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점수를 주었다.

양육행동 요인에 대한 문항 수는 민주·자율적 행동은 28문항으로 140점 만점이고, 기대·간섭적 행동과 온정적 행동은 각각 6문항으로 각각 30점 만점이며, 불안·복종적 행동은 4문항으로 20점이 만점이다.

## 2) 정서지능검사

아직까지 정서지능 전체 영역을 측정하는 검사가 전혀 없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정서지능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정서지능 검사가 전체 능력 측정이 아니라 하위요소별 검사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검사도구는 Mayer와 Salovey의 정서지능 모형(1990)에 입각하여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1997)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했다.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문항 내적 합치도를 통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Ⅲ-3>과 같고, 정서지능의 측정요소에 대한 문항번호는 <표Ⅲ-4>와 같다.

<표Ⅲ-3> 정서지능 검사의 신뢰도(Alpha 계수)

구분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신뢰도	.7797	.6804	.7164	.8362	.7020

<표Ⅲ-4> 정서지능의 측정요소에 대한 문항 번호

측 정 요 소		문 항 번 호
정서인식	자신의 정서인식	4, 5, 6, 7, 8
	타인의 정서인식	1, 2
정서표현		3, 10, 11, 12, 17, 18
감정이입		9, 13, 14, 15, 16, 19, 20
정서조절	자신의 정서조절	21, 22, 25, 26, 27
	타인의 정서조절	28, 31, 32, 33, 34
정서활용		23, 24, 29, 30, 35, 36, 37

<표Ⅲ-4>와 같이 정서지능의 측정요소에 대한 문항 수는 자신의 정서인식 능력은 5문항으로 10점 만점이고, 타인의 정서인식은 2문항으로 4점 만점이고, 정서표현은 6문항으로 12점 만점이고, 감정이입은 7문항으로 14점 만점이고, 자신의 정서조절은 5문항으로 10점 만점, 정서활용은 7문항으로 14점 만점이다.

### 3. 자료처리

####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검사지는 44개 문항으로 각 문항이 5점 평정척도로 되어있다.

각 문항의 내용은 '아주 그렇다'에는 ①, '그런 편이다'에는 ②, '그저

그렇다'에는 ③, '그렇지 않다'에는 ④,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⑤에 표시 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을 5점 척도로 하여 문항 1번부터 28번까지는 5점(아주 그렇다)부터 1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29번부터 44번까지는 1점(아주 그렇다)부터 5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점수를 주었다. 이 점수를 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성, 지역, 학년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프로그램을 이용한 t, F검증을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5(*)$ ,  $p=.01(**)$ 에서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 2) 정서지능

정서지능 검사지는 37문항으로 되어있다. 문항 1번~22번, 25번~28번, 31번~34번은 세 개의 평정척도로 되어 있어 '항상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①, '가끔 그런 편이다'는 ②, '그렇지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③에 표기 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 23번~24번, 29번~30번, 35번~37번은 선택형으로 되어 있다. 정서지능 수준 채점은 정서인식 문항, 감정이입 문항, 정서조절 문항인 경우 ①은 2점 ②는 1점 ③은 0점이고, 정서표현 문항인 경우는 ①은 0점 ②는 1점 ③은 2점이고, 정서활용 문항인 경우는 ①은 2점 ②는 0점으로 하였다. 이 점수를 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아동의 정서지능을 성, 지역, 학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프로그램을 이용한 t, F검증을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5(*)$ ,  $p=.01(**)$ 에서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위해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요인간 상관분석을 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남녀별, 지역별, 학년별 비교, 둘째, 아동의 정서지능을 남녀별, 지역별, 학년별 비교, 셋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남녀별, 지역별, 학년별 차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 남녀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차이

양육행동	남		여		t
	X	SD	X	SD	
민주·자율적	108.09	16.21	109.56	16.48	-1.07
기대·간섭적	20.15	5.55	21.70	5.41	-3.40**
온정적	23.75	4.56	23.11	4.50	1.70
불안·복종적	10.71	3.55	11.32	2.99	-2.25*

\*  $p < 0.05$  \*\*  $p < 0.01$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민주·자율적이며, 온정적인 편이고, 기대와 간섭을 하는 편이며

자녀에 대하여는 불안·복종적인 편이다. 기대·간섭적 행동인 경우 남아의 평균은 20.15이고 여아의 평균은 21.70으로 의미있는 차이( $t=-3.40, P<.01$ )를 보이고 있다. 불안·복종적 행동인 경우 남아의 평균은 10.71이고, 여아의 평균은 11.32로 의미있는 차이( $t=-2.25, P<.01$ )를 보이고 있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를 더 기대·간섭적, 불안·복종적으로 지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자율적 양육행동과 온정적 양육행동에는 남녀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 지역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차이

지역별 통계치 양육행동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F
	X	SD	X	SD	X	SD	X	SD	
민주·자율적	110.73	16.47	111.46	15.05	106.57	16.22	108.32	16.85	2.57
기대·간섭적	21.66	5.18	21.82	5.61	20.29	5.78	20.48	5.38	2.75 *
온정적	23.71	4.94	24.44	3.93	22.59	4.74	23.55	4.24	3.94 **
불안·복종적	11.53	3.31	10.51	3.23	10.88	3.48	11.04	3.13	1.87

\*  $p<0.05$  \*\*  $p<0.01$

<표 IV-2>에 의하면 지역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기대·간섭적 행동인 경우 제주시 지역의 평균은 21.66이고, 서귀포시 지역의 평균은 21.82이고, 북제주군 지역의 평균은 20.29이고, 남제주군 지역의 평균은 20.48로 의미있는 차이( $F=2.75, P<.05$ )가 나타났는데 서귀포시,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순으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

다. 온정적 행동인 경우 제주시 지역의 평균은 23.71이고, 서귀포시 지역의 평균은 24.44이고, 북제주군 지역의 평균은 22.59이고, 남제주군 지역의 평균은 23.55로 의미있는 차이( $F=3.94, P<.01$ )가 나타났는데 서귀포시,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서귀포시 지역 아동이 다른 지역 아동보다 어머니를 더 기대·간섭적, 온정적으로 지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자율적 양육행동과 불안·복종적 양육행동은 지역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3> 학년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차이

학년별 통계치 양육행동	4학년		5학년		6학년		F
	X	SD	X	SD	X	SD	
민주·자율적	108.67	17.06	110.16	16.48	107.59	15.44	1.17
기대·간섭적	20.84	5.96	21.09	5.40	20.76	5.24	0.19
온정적	23.19	4.57	23.91	4.46	23.20	4.57	1.59
불안·복종적	10.92	3.50	11.07	3.43	11.02	2.96	0.11

<표 IV-3>에서 학년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아동의 정서지능

아동의 정서지능에서 남녀별, 지역별, 학년별 차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4> 남녀별 정서지능 차이

정서지능	남녀별 통계치	남		여		t
		X	SD	$\bar{X}$	SD	
정 서 인 식	자신의 정서인식	8.00	1.90	8.07	1.81	-0.46
	타인의 정서인식	2.48	1.01	2.45	0.85	0.48
	종합	10.48	2.41	10.51	2.28	-0.08
정서표현		7.17	2.23	7.89	2.28	-3.81 **
감정이입		8.59	2.63	8.38	2.45	1.02
정 서 조 절	자신의 정서조절	6.80	1.96	6.87	1.98	-0.46
	타인의 정서조절	6.43	2.08	6.74	1.91	-1.91
	종합	13.20	3.43	13.60	3.47	-1.37
정서활용		7.84	4.05	8.52	4.00	-2.02 *

\*  $p < 0.05$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별 정서지능은 정서표현 능력인 경우 남아의 평균은 7.17이고, 여아의 평균은 7.89로 의미있는 차이( $t = -3.81, P < .01$ )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아보다 여아들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할 줄 알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정서활용 능력인 경우 남아의 평균은 7.84이고, 여아의 평균은 8.52로 의미있는 차이( $t = -2.02, P < .05$ )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아보다 여아가 자신

의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정서인식 능력과 감정이입 능력, 정서조절 능력은 남녀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5> 지역별 정서지능 차이

정서지능	지역별 통계치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F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정 서 인 식	자신의 정서인식	8.04	1.98	8.23	2.02	7.93	1.92	8.01	1.62	0.56
	타인의 정서인식	2.52	1.00	2.36	0.96	2.43	0.90	2.52	0.92	0.78
	종합	10.56	2.49	10.60	2.54	10.37	2.39	10.53	2.10	0.28
정서표현		7.67	2.28	7.84	2.18	7.23	2.31	7.52	2.29	1.77
감정이입		8.52	2.55	8.82	2.72	8.29	2.48	8.48	2.50	0.91
정 서 조 절	자신의 정서조절	6.90	2.00	7.08	2.00	6.54	2.11	6.94	1.76	2.05
	타인의 정서조절	6.71	1.90	6.86	2.07	6.37	2.10	6.54	1.93	1.51
	종합	13.58	3.31	13.94	3.61	12.87	3.68	13.49	3.17	2.36
정서활용		8.72	3.91	8.96	3.76	7.36	4.28	8.05	3.90	4.48**

\*\*  $p < 0.01$

<표 IV-5>에서 보면 지역별 정서지능은 정서활용 능력인 경우 제주시 지역의 평균은 8.72이고, 서귀포시 지역의 평균은 8.96이고, 북제주

군 지역의 평균은 7.36이고, 남제주군 지역의 평균은 8.05로 정서활용 능력에 대하여 지역에 따른 효과는 의미있는 차이( $F=4.48, P<.01$ )를 보였다. 즉, 정서활용 능력은 서귀포시가 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서인식 능력, 정서표현 능력, 감정이입 능력, 정서조절 능력인 경우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6> 학년별 정서지능 차이

정서지능		학년별 통계치		4학년		5학년		6학년		F
		X	SD	$\bar{X}$	SD	$\bar{X}$	SD			
정서인식	자신의 정서인식	7.80	1.89	7.92	2.04	8.38	1.57	5.20 **		
	타인의 정서인식	2.37	0.94	2.50	0.96	2.52	0.90	1.55		
	종합	10.17	2.38	10.42	2.51	10.90	2.07	4.85 **		
정서표현		7.63	2.25	7.35	2.22	7.57	2.37	0.82		
감정이입		8.20	2.65	8.34	2.53	8.94	2.39	4.55 **		
정서조절	자신의 정서조절	3.66	2.05	6.88	2.01	6.97	1.84	1.25		
	타인의 정서조절	6.12	2.02	6.59	2.09	7.01	1.79	9.64 **		
	종합	12.75	3.51	13.45	3.57	13.97	3.17	5.97 **		
정서활용		8.17	4.28	8.36	4.21	7.96	3.63	0.49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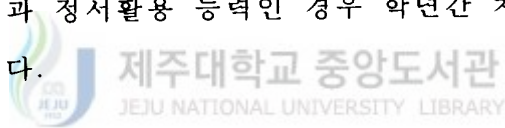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별 정서지능은 정서인식인 경우 4학년의 평균이 10.17이고, 5학년의 평균이 10.42이고, 6학년의 평균이

10.90으로 의미있는 차이( $F=5.20, P<.01$ )를 나타내고 있는데, 학년이 높을수록 정서인식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정서인식 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화난 것인지, 우울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감정이입인 경우 4학년의 평균이 8.20이고, 5학년의 평균이 8.34이고, 6학년의 평균이 8.94로 의미있는 차이( $F=4.55, P<.01$ )를 나타내고 있는데 학년이 높을수록 감정이입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을 자신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정서조절인 경우 4학년 평균은 12.75, 5학년의 평균은 13.45, 6학년 평균은 13.97로 의미있는 차이( $F=5.97, P<.01$ )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타인의 정서조절인 경우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높아 사회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서표현 능력과 정서활용 능력인 경우 학년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도는 다음과 같다.

<표 IV-7> 정서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상관도

정서지능 하위요소		양육행동			
		민주·자율적	기대·간섭적	온정적	불안·복종적
정 서 인 식	자신의 정서인식	0.2294 **	0.1077 **	0.1198 **	0.0125
	타인의 정서인식	0.2420 **	0.1060 **	0.2075 **	-0.1167 **
	종합	0.2777 **	0.1273 **	0.1775 **	-0.0369

\*\*  $p < 0.01$

<표 IV-7>은 정서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정서지능 하위요소 중 자신의 정서인식 능력은 어머니의 민주·자율적 양육행동, 온정적 양육행동, 기대·간섭적 양육행동과 정적으로 의미있는 상관( $P < 0.01$ )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민주·자율적, 기대·간섭적, 온정적으로 지각할 때 자신의 정서인식을 높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 하위요소 중 타인의 정서인식은 민주·자율적 양육행동, 온정적 양육행동, 기대·간섭적 양육행동과 정적으로 의미있는 상관( $P < 0.01$ )을 나타내고 있는데 불안·복종적 양육행동은 부적으로 의미있는 상관(-0.1167,  $P < 0.01$ )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민주·자율적, 기대·간섭적, 온정적으로 지각하고, 덜 불안·복종적으로 지각할 때 타인에 대한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제대로 알아차리는 타인의 정서인식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신의 정서인식보다 타인의 정서인식에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신의 정서인식보다 타인의 정서인식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표 IV-8> 정서표현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상관도

정서지능 하위요소	양육행동			
	민주·자율적	기대·간섭적	온정적	불안·복종적
정서표현	0.2017 **	0.2419 **	0.1877 **	0.1425 **

\*\*  $p < 0.01$

<표 IV-8>은 정서표현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이 정서표현과 의미있는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아동이 어머니를 민주·자율적(0.2017,  $P < .01$ )으로 지각할 때보다 기대·간섭적(0.2419,  $P < .01$ )으로 지각할 때 더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아동인 경우 자발적으로 자기의 정서를 표현하기 보다는 외부자극에 의해 강요될 때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IV-9> 감정이입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상관도

정서지능 하위요소	양육행동			
	민주·자율적	기대·간섭적	온정적	불안·복종적
감정이입	0.3179 **	0.1322 **	0.2241 **	-0.1175 **

\*\*  $p < 0.01$

<표 IV-9>는 감정이입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감정이입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의미있는 상관( $P < .01$ )을 나타내고 있는데 불안·복종적 양육행동과의 상관은 부적으로 의미있는 상관(-0.1175,  $P < .01$ )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을 민주·자율적, 온정적, 기대·간섭적으로 지각하고, 덜 불안·복종적으로 지각할 때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여 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을 자신도 함께 느끼는 감정이입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정서조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상관도

정서지능 하위요소	양육행동			
	민주·자율적	기대·간섭적	온정적	불안·복종적
자신의 정서인식	0.4245 **	0.1777 **	0.2991 **	-0.1055 **
타인의 정서인식	0.3907 **	0.1148 **	0.2692 **	-0.0932 **
종합	0.4684 **	0.1678 **	0.1678 **	-0.1142 **

\*\*  $p < 0.01$

<표 IV-10>은 정서조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정서지능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의미있는 상관( $P < .01$ )을 나타내고 있는데 불안·복종적 양육행동인 경우 부적으로 의미있는 상관(-0.1142,  $P < .01$ )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주·자율적 양육행동은 정적으로 높은 상관(0.4684,  $P < .01$ )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민주·자율적으로 지각하고, 덜 불안·복종적 행동으로 지각할 때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자신을 사회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은 정서활용과 어머니 양육행동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정서지능 하위요인 중 정서활용은 어머니의 민주·자율적 양육행동, 기대·간섭적 양육행동, 온정적 양육행동과 의미있는 상관

<표 IV-11> 정서활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상관도

정서지능 하위요소	양육행동			
	민주·자율적	기대·간섭적	온정적	불안·복종적
정서 활용	0.3118 **	0.2703 **	0.2578 **	-0.0455

\*\*  $p < 0.01$

( $P < .01$ )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불안·복종적 양육행동은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의미있는 상관은 아니다. 즉,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민주·자율적, 기대·간섭적, 온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신의 정서를 이용해서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서활용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성, 지역, 학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가, 아동의 정서지능이 성, 지역, 학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가,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헌을 통한 이론적 배경과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성, 지역,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정서지능은 성, 지역,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이 있다면 아동의 정서지능을 설명하는데 어떤 양육행동이 더 중요한가?

위의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도에 있는 2개의 시, 2개의 군에 있는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 중 약 600명을 선정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처음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검사지와 정서지능 검사지를 한 묶음으로 하여 600부 배부했으나 편부아동, 부실 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한 582부가 회수되어 연구대상이 되었다. 검사의 종류는 먼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검사도구는 정현희(1990)의 검사지를 사용했고, 아동의 정서지능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의 검사지를 사용했다.

자료처리는 SPSS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 F검증, 상관분석을 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민주·자율적 행동, 온정적 행동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으나 기대·간섭적 행동( $t=-3.40, P<.01$ ), 불안·복종적 행동( $t=-2.25, P<.05$ )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에서도 어머니의 기대·간섭적 행동( $F=2.75, P<.05$ ), 온정적 행동( $F=3.94, P<.01$ )에서는 서귀포시가 다른 지역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아동의 정서지능은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표현 능력( $t=-3.81, P<.01$ ), 정서활용 능력( $t=-2.02, P<.05$ )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는 정서활용 능력( $F=4.48, P<.01$ )영역에서 서귀포시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비교는 정서인식 능력( $F=4.48, P<.01$ ), 감정이입 능력( $F=4.55, P<.01$ ), 정서조절 능력( $F=5.97, P<.01$ )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았다. 특히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 $F=9.64, P<.01$ )은 학년이 높을수록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민주·자율적 양육행동이 그밖의 양육행동보다 정서지능 하위요소인 정서인식( $0.2777, P<.01$ ), 감정이입( $0.3179, P<.01$ ), 정서조절( $0.4684, P<.01$ ), 정서활용( $0.3118, P<.01$ ) 능력과 더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의 불안·복종적 양육행동은 정서지능 하위요소인 타인의 정서인식( $-0.1167, P<.01$ ), 감정이입( $-0.1175, P<.05$ ), 정서조절( $0.1142, P<.05$ ) 능력과 부적적으로 의미있는 상관을 가지고 있다. 즉 아동은 어머니 양육행동을 민주·자율적으로 지각할 때, 덜 불안·복

총적으로 지각할 때 정서지능 하위요소별 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대·간섭적 행동, 불안·복종적 행동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지각한다. 지역별에서는 서귀포시가 어머니를 더 기대·간섭적, 온정적으로 지각한다.

둘째, 아동의 정서지능에서는 정서표현 능력과 정서활용 능력이 여아가 남아보다 매우 또는 다소 높다. 정서조절 능력은 서귀포시가 가장 높고 다음이 제주시가 높다. 정서인식 능력과 감정이입 능력, 그리고 정서조절 능력은 학년이 높을수록 매우 높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준다.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민주·자율적, 온정적, 기대·간섭적으로 지각하고, 덜 불안·복종적으로 지각할 때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감정이입 능력이 높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정서조절 능력도 높다.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민주·자율적, 기대·간섭적, 온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는 자기의 정서인식 능력이 높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서활용 능력도 높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지능을 높여 행복한 삶,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아동중심적이고 자립적 사고를 고무시켜주고 격려해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합리적 해결과정을 조성해 주는 민주·자율적 양육행동이야 할 것이다.

### 3.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몇 가지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측정방법은 질문지법 뿐만 아니라 자연관찰법, 실험실 연구방법 등의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는 측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지능과의 상관을 보아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과 더불어 어머니 양육기술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어머니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의 구성이 핵가족 소가족화 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지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철저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양부모의 양육행동을 결합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용관(1982).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의 차이가 성격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은(1974). 한국 가족의 심리.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창대(1997). 정서지능의 계발과 활용. '97.청소년상담학술세미나.
- 권옥자(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재원(1983). 교육심리학. 형설출판사. -교육의 심리학적 기초-
- 문용린(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 연구.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집.
- (1996). IQ와 EQ,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중요한가.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 (1997).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글이랑.
- 박주용(1997). 인지심리학에서 본 정서지능. 한국심리학회지.
- 오기선(1965). 어버이와 자녀 관계진단검사요강. 서울: 코리아 테스트센터.
-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진우(1996). 지금은 감성지수 시대, 교육월보.
- 이춘재 외(1992). 청년심리학.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임선화(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종렬(1997). 대상관계 이론과 가족치료. 도서출판신한.
- 윤정애(199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내외통제성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협감(1997). 정서지능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 전겸구(1997). 정서지능과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 정원식(1975). 인간과 교육. 서울:배영사.
- 정현희(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한국 아동과 일본 아동의 비교-.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은경(1997). 정서지능을 뭐라고 이해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 하대현(1997). 새로운 지능개념으로서의 정서지능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 허철수(1997). 정서지능(EQ)의 하위요소별 특성분석-제주도 초,중학생 중심으로-. '97.청소년상담학술세미나
- Baldwin, A. L. (1955). *Behavior and development in childhood*. N.Y.:Holt, Pinehart and Winston.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Martin L. Hiffman and Lois W. Hoffman (eds.), by Russell Sage Foundation.
- Epstein, S. (1992). Constructive thinking and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in L. M. S. Filipp & M.J. Lerner (Eds). *Life crises and experiences of loss in adulthood*.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 Erikson, E.,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Y.:Haper and Brothers, 1956), p.152 재인용.

- 
- Gardner, H.(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1993).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Books.
- 황태호 역(1996). 감성지능. 서울:비전코리아.
- James, W.(1984). *What is an emotion?* *Mind*, 9, 188-205.
- Kernberg, O. (1976). *Object relations theory and clinical psychoanalysis*. New York: Jason Aronson.
- LeDoux, J.(1996):*The Emotional Brain:The Mysterious Understanding of Emotional life*. New York:Simon & Schuster.
- Leeper, R. W.(1965). *Some needed development in the motional theory*. in D. Levin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Lincoln, Nebraska, pp.25-122.
- Salovey, P.(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other Way to be smart?* Paper presented at the sejong Cultural Center, Seoul, Korea.
- Salovey,P.&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 Salovey,P.& Mayer, J. D.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pp.105-153).New York: Basic Books.
- Scarr, S.(1989). *Protecting general intelligence: Constructs and*

- 
- consequences for intervention. In R. L. Linn(Ed.),  
*Intelligence, theory and public policy* (pp.74-118).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ternberg, R.J. (1985). *Beyond IQ: A triarchic theory of human intelligenc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하대현 역  
(1991). *신지능 이론: 인간 지능의 삼위일체 이론*. 서울:  
교문사.
- Sternberg, R.J.(1990). *Metaphors of mind: Conceptions of the nature of intelligence*.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Y.,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Wechsler, D.(1958). *The Measurement and appraisal of adult intelligence*. Baltimore, MD: Williams & Wilkins





---

<Abstract>

The Effects of the Maternal Rearing Behavior on Children's  
Emotion Intelligence

Oh, Young-mi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eo, Chul-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maternal rearing behavior on emotion intelligence. To achieve this purpose, following problems were put forward.

1) Is there difference in the maternal rearing behavior perceived by her children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area, grade?

2) Is there difference in the emotion intelligence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area, grade?

3) Does the maternal rearing behavior have an effects on children' emotion intelligence? If there is some effect, which rearing behavior is more important in emotion intellig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82 children in 4th-6th grade at a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7.

---

primary school in Cheju city. Tools used in the study were the perceived maternal rearing behavior by children test by Hyeonhee Jeong(1990), emotion intelligence test is based on Mayer & Salovey's emotion intelligence model(1990) produced by Seoul University Educational Institute.

Date processing was verified by t-examination, F examination and correlation-analysis using SPSS computer program.

The result were as follows.

1) The female perceived their mothers' behavior as anticipative and interfering , anxious and obedient behavior more than male. The segupo's children perceived their mother' behavior as anticipative and interfering, warmhearted more than other area'.

2) As for expression of emotion and utilization of emotion on emotion intelligence, female was higher than male. As for regulation of emotion, segupo' children was higher than other area'. As for awareness of emotion, the higher grade was the higher scores.

3) The children who perceived their mother' behavior as democratic and autonomous and who didn't perceived their mother' behavior as anticipative and interfering showed higher scores on empathy, regulation of emotion than those who perceived other behavior. When the children perceived their mother' behavior as democratic and autonomous, awareness of emotion and utilization of emotion was high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ke it possible to conclude that child-rearing behavior of mother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emotion intelligence of her children, but to generalize its study, many appropriate tests are needed to develop.

## 부 록

### <부록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용 질문지-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어머니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학교 성적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을 잘 읽은 후에 한 문제도 빠짐없이 평소에 느낀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오영미 드림



\* 해당되는 곳에 ○ 표하거나 ( )를 채워 주십시오.

1. 사는 지역: 제 주 시( ) 2. 성별: 남( ) 3. ( )학년  
서귀포시( ) 여(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 ①                      ②                      ③                      ④                      ⑤

아주 그렇다. 그런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검사

이주    그런    그저    그렇지    전혀  
 그렇다    편이다    그렇다    않다    않다

- |  |   |   |   |   |   |
|--|---|---|---|---|---|
| 1. 어머니는 나와 함께 이야기하시기를 좋아하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어머니는 나와 함께 외출하거나 놀아주는 일을 좋아하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어머니는 나에게 미소 띠는 얼굴로 대해 주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어머니는 나를 안아주거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어머니는 가족의 계획에 나의 의견을 고려하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어머니는 내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어머니는 나에게 칭찬을 해 주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어머니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어머니는 내가 친구하고 논 이야기나 그 밖의 하루동안 지낸 일을 물어 보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나의 의견이 어머니 의견보다 더 좋다고 생각되면 서슴치 않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어머니는 나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물어 보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어머니는 내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나 혼자 힘으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도록 격려해 주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어머니는 친구 사귀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하도록 허용해 주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어머니는 내가 호기심을 갖고 사물을 탐색하고 질문하는 것을 격려하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아주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 어머니는 하던 일을 끝까지 마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16. 어머니는 나에게 남보다 잘한다고 격려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17. 어머니는 내 능력이나 힘에 좀 벅찬 일이라도 나에게 해보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18. 어머니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보라고 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19. 어머니는 내가 잘못할 때 그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깨닫게 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20. 어머니는 내가 잘못하면 나를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21. 어머니는 내 요구를 거절하실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22. 어머니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잘 지킵니다.	①	②	③	④	⑤
23. 어머니는 내게 벌을 주실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24. 어머니는 내가 질문하면 아시는 데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25. 어머니는 내가 어떤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좀 더 생각해 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26.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27. 어머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28. 어머니는 아이의 말이라도 그럴 듯하면 잘 들어 주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29. 어머니는 내가 말을 붙이면 바쁘다고 말상대를 해 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아주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0. 어머니는 나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1. 어머니는 나의 좋은 점을 보지 않고 나쁜 점만 들추어 내신다.	①	②	③	④	⑤
32. 어머니는 하찮은 일로도 나를 바보나 멍청이 같다고 꾸중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3. 어머니는 나를 귀찮게 하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4. 어머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⑤
35. 어머니는 내가 입기 싫은 옷도 입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6. 내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7.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나에게 관한 일을 어머니 마음대로 결정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8. 내가 어머니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꾸짖는다.	①	②	③	④	⑤
39. 어머니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일은 나에게 강제라도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40. 어머니는 나에게 “이것은 안돼”, “저것은 하면 못쓴다” 등과 같은 말씀을 사용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1. 어머니는 내가 집 밖에 나가 있을 때는 걱정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2. 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면 실수를 할까봐 걱정부터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3. 어머니는 끈덕지게 조르면 나중에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4. 꼭 해야 할 일을 내가 싫다고 해도 어머니는 꾸중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2> 초등학교 고학년용 정서지능 검사지

---

---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학교 성적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을 잘 읽은 후에 한 문제도 빠짐없이 평소에 느낀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오영미 드림

---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해당되는 곳에 ○ 표하거나 ( )를 채워 주십시오.

1. 사는 지역: 제 주 시( ) 2. 성별: 남( ) 3. ( )학년  
서귀포시( ) 여(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 아동의 정서지능

\* 다음 중 자신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0 표 하세요.

1. 나는 조화 때 선생님의 표정만 봐도, 선생님의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2. 나는 목소리나 말투만 들어도 그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3. 평소에 마음에 드는 친구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4.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5. 나는 내가 화가 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잘 구별할 수 있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6. 나는 내가 슬픈지, 부끄러운지 잘 구별할 수 있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7. 나는 내가 싫증이 났는지, 불안한지 잘 구별할 수 있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8. 나는 내가 마음이 뿌듯한지, 신나는지 잘 구별할 수 있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9.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혼자 다니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게 느껴진다.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런 편이다.      ③아무렇지도 않다.
10.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실 때, 나도 엄마를 안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11. 내 짝이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나는 속으로는 축하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 적이 있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12. 내 친구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속으로는 그 친구를 위로 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13. 몸이 약한 친구가 불쌍하고 걱정이 된다.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런 편이다.      ③아무렇지도 않다.
14. 친구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좋아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런 편이다.      ③아무렇지도 않다.
15. 어머니나 친구가 기분이 나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런 편이다.      ③아무렇지도 않다.
16. 친구가 벌을 받는 것을 보면, 나도 야단맞은 것 같이 기분이 나빠진다.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런 편이다.      ③아무렇지도 않다.
17.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친구가 도와 주었을 때, 나는 속으로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18. 평소에 좋아하는 선생님을 보았을 때, 나는 속으로는 달려가서 인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19. 울면서 가는 아이를 보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런 편이다.      ③아무렇지도 않다.
20. 나는 육교나 지하철에서 거지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다.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런 편이다.      ③아무렇지도 않다.
21. 나는 우울할 때,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한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22. 나는 평소에 기분을 좋게 가지려고 애쓰는 편이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23. 내가 열심히 한 숙제가 없어져서 속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①속상하지만 빨리 잊고, 숙제를 다시 시작한다.  
 ②잃어버린 숙제가 자꾸 생각나서 다시 하기 싫어진다.
24.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데 엄마 친구분들이 집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 하고 계실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①시끄러워도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②엄마 친구들 때문에 시험을 망칠 것 같아서 짜증이 난다.
25. 나는 기분 나쁜 일은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26. 나는 행복한 순간의 느낌을 오래 간직하려고 노력한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27. 나는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28.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위해 나는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려고 애쓴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29. 친구와 내가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도 선생님이 나만 야단을 치실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①나도 잘못했으므로 선생님의 야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②나만 야단치시는 선생님이 밉고 화가 난다.
30. 시험을 망쳐서 기분이 나쁠 때, 주로 어떻게 하나요?  
 ①오늘 시험은 빨리 잊고 내일 볼 시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②오늘 본 시험이 자꾸 떠올라서 공부가 잘 안된다.
31. 짝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나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32.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위해 나는 늘 웃으려고 노력한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33. 어머니(아버지)께서 화가 나셨을 때, 나는 잘못된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34. 친구가 슬퍼 보일 때, 나는 기분을 좋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다.
35. 내가 싫어하는 친구와 짝이되면, 어떻게 하나요?  
 ①그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②그 친구와는 놀지 않고 다른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
36. 나에 대해 나쁜 이야기(욕이나 헐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하나요?  
 ①기분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②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를 내거나 따진다.
37. 내일이 시험인데 너무 졸려서 짜증이 날 때, 어떻게 하나요?  
 ①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한다.  
 ②지금 공부해도 잘 안 될 것이므로 그냥 쉬거나 잠을 잔다.